

‘각당각색’ 자체개헌안

헌정특위 재가동... 권력구조 개편·기본권 쟁점 사안마다 이견

여야가 9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설위원회(헌정특위)에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면서 개헌안 논의가 본격화됐다. 하지만 각 쟁점에 대해 여야의 이견이 커 합의안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헌법 전문의 경우, 민주당은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을 명시하도록 했다. 평화당은 동학농민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촛불시민혁명을, 정의당은 5·18 민주화운동·부마항쟁·6월 항쟁·촛불시민혁명 등을 명시토록 했다. 반면 한국당은 현행 전문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도 조항과 관련해 민주당은 행정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토록 한 반면 한국당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헌법에 명시하되 법률로 수도 기능 가운데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평화당·정의당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입장이 반면 한국당은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유사점이 많았다. 민주당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고, 생명권을 신설 했다. 정의당 역시 기본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으로 하고 생명권 명시와 함께 사형제 폐지도 함께 명기하도록 했다. 또 성평등 조항을 별도로 조문화하고 광명권 조항 신설도 제안했다.

반면, 한국당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사회적 기본권 강화하고 사회적 평등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에는 민주당, 한국당, 평화당, 정의당 모두 대체로 동의했다.

정부 형태와 관련,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을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위해 분권형 대통령·책임총리제 도입을 주장했다.

평화당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의결로 국무총리를 추천하되, 대통령은 임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했다.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서는 4년 연임 대통령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정의당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민주당과 평화당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대통령 피선거권 나이 제한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거구제와 관련, 민주당은 ‘선거의 비례성 원칙’ 준수를 명시하도록 했고 한국당은 국민 대표성 강화와 비례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개헌안에 담도록 했다. 평화당은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의 비례성이 보장되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동의했고, 평화당은 행정·사법부 공직자에 대해서도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한국당, 정의당은 모두 헌법상 검사의 영장 청구권 규정을 폐지하도록 했다. 한국당은 사정기관의 권력기관화를 막기 위해 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공정위 등 5대 권력기관의 대통령 인사권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과 헌법재판관 선출과 관련해서는 한국당·평화당·정의당은 모두 인사추천위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 인사권을 제한했다. /임동욱기자 tuim@



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정례회동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평화와 정의의 노회찬 원내대표. /연합뉴스

공회전 국회... 이낙연 총리 시정연설 무산

여야 원내대표 회동... 국회정상화 협상 결렬

여야 원내대표는 9일 개헌안과 방송법 개정안,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이날 오후 예정된 국무총리의 추경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

회찬 원내대표 등은 이날 조찬회동을 벌인 뒤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정례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곧바로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회동까지 가지며 논의를 이어갔지만 자신들의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끝내 접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개헌안을 놓고 여야는 기존의 입장에서 후퇴하지 않았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는 민주당은 상임위에 올라온 안을 전부 논의하자는 주장을 편 반면, 한국당 등 야당은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간 합의가 실패하면서 이날 오후 본회의가 무산된 것은 물론 다음날부터 예정된 대정부질문 등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6·13 선거 현장

구청장·군수 후보

임우진, 민주당 공천배제 반발 1인시위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이 9일 “민주당의 심사기준과 관련해 고무줄 잣대 논란이 끊이지 않아 10일 오전 8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친다”고 밝혔다.

임 구청장은 “민주당 중앙당에 두 차례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어떠한 대답도 듣지 못했다”면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에게도 최후 진술권을 준다”고 주장했다. 또 “추미에 대표와 이춘석 사무총장은 면담 요청에 즉각 응답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임 구청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직 구청장을 예비후보 경선에 참여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민심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며 민주당에 재심을 청구했다.

양혜령 “여성 행복시대 열겠다”



양혜령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9일 “동구는 함께 출산율이 0.939명(2016년 기준)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이와 같은 인구 절벽 현상은 자칫 국가적 재앙으로 연결될 수 있고, 민족 멸망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후보는 “저출산 극복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할 핵심적인 국가 과제이고,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결혼-출산-양육-일-가정 양립’이라는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제시했다”면서 “동구청장에 당선되면, 이에 부응하여 ‘생산적인 육아 공동체 조성’ 등 출산율 증가와 여성행복시대를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윤봉근, 영화 ‘임 행진곡’ 후원 감사패 받아



윤봉근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9일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작사(주) 무당벌레필름 박기복 감독으로부터 영화 제작을 위해 후원하고 참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윤 후보는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은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 10곳 도시에서 출정식 겸 영화 후원 감사 시사회를 연다”면서 “이 영화는 광주영상위원회, 광주진흥고등학교 총동문회의 후원 등 시민들의 정성이 모아지면서 2년여 만에 제작됐다”고 설명했다. 또 “5·18의 슬픔과 진실을 담은 이 영화는 전 국민의 합성과 함께 문재인 정부와 함께 5·18을 전국화시키는데 그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래옥 “미투 폭로는 나와 무관”



박래옥 더불어민주당 함평군수 예비후보가 지난 5일 선거사무소를 개소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갖 중상모략과 고소·고발로 합평이 상처받고 갈라지는 것이 안타깝다”며 자신과 관련된 거짓 소문에 대해 해명했다. 박 예비후보는 “안병호 군수의 미투폭로와 관련해 피해 여성과 사전에 어떠한 교감도, 연락도 없었다”며 “미투피해자들을 안 군수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 청년부장단 워크숍 비용으로 500만원을 지급한 일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화합하는 합평으로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진 “노인 일자리 창출·실버푸드 육성”



최진 더불어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는 9일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의 건강 복지 증진과 노인 일자리창출, 그리고 해외 수억사업의 일거삼득 효과를 위해 고령친화식품시장(실버 푸드)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선진국형 고령친화식품시장 육성 사업을 통해 남구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면서 “어르신들이 4차 산업의 역군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설립돼 있는 광주 공중합선터와 정통발효식품단지, 세계김치연구소 등 발효산업과 연관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고령친화식품을 개발·육성하고, 이를 위해서 R&D 투자 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일본·중국 등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해외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출시장을 넓혀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한필 “구청장 365 다이렉트콜로 소통 강화”



임한필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9일 “광산구민이라면 누구나 광산구청장과 언제든(When) 어디서든(Where) 어떤 민원이든(What) 바로 연락할 수 있는 ‘구청장 365 다이렉트콜’을 설치해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한 소통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국민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구민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며, 구민이 언제든 필요로 할 때 구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에 대해 응답할 의무가 있다”며 “구청장 365 다이렉트콜” 번호를 구청 및 주민센터, 각종 기관단체에서 발간하는 소식지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구청장과 통화, 문자, 카톡 등을 통해 민원을 받고 이를 신속히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수 “일·가정 양립 직장맘 지원센터 설치”



정재수 더불어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는 9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남구에 직장맘 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정 후보는 “육아 환경과 노동권 미흡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직장맘들의 근로경력 유지를 위해 직장맘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직장맘 지원센터 조례 제정, 마을 돌봄 가사 지원사업 추진 운영 등의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직장맘 지원센터를 통해 엄마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더불어 출산 장려정책도 펼쳐 아이키우기 좋은 남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박병동 “장흥 재정자립 최하위 벗어날 것”



박병동 더불어민주당 장흥군수 예비후보가 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고 본격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선거사무소는 장흥읍 삼성디지털프라자 2층에 마련했으며, 이날 행사에는 신문식 지역위원장, 정순균 전 홍보차장,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박 예비후보는 “35년 동안 중앙과 지방에서 경찰행정을 두루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침체된 농어업과 저출산 문제를 푸는데 역점을 두겠다”면서 “군수가 되면 무엇보다도 재정자립도 최하위를 벗어나는데 최우선 정책을 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함평 황윤학기자 hwang@/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7(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191.03㎡(57.7평) 건물 : 728.97㎡(220.5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 : 27억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 : 7,662.4㎡(2,317.8평) 건물 : 6,864.61㎡(2076.5평) 지상 3층 매매가 95억 (보종금 4억2천, 월차임료2천6백만 외에 사우나·휘트니스 직영 중) 대로변,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대출60억
- ★ [건물] 광주 동구 장동 (준주거지역) 토지 : 136.20㎡(41.2평) 건물 : 265.58㎡(80.3평) 지하층 지상3층 매매가 : 12억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 : 3,104.6㎡(939.1평) 건물 : 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 : 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근린상가·요양병원(350메드이상) 적합-(상가와 요양병원 복합도 가능)

병 원

- ★ [의료시설] 광주 북구 운암동 토지 : 2,769㎡(837.6평) 건물 : 3,793㎡(1147.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100억 병원, 학원, 사육 적합 (중증가능)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 : 619.62㎡(187.4평) 건물 : 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접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 : 2,756㎡(833.6평) 건물 : 3,568.32㎡(1079.4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56억 상담 후 결정
- ★ [의료시설] 광주 서구 농성동 토지 : 2,319㎡(701.4평) 건물 : 3,998.33㎡(1209.4평) 지상5층 매매가 : 65억 도로변, 광주 신세계백화점 인근

경매 추천 물건

-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전동(공장) 토지 : 7339.4㎡(2220.2평) 건물 : 4153.34㎡(1256.4평) 감정이 : 6,489,967,980원 최저가 : 4,542,978,000원
- ★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근린주택) 토지 : 4200㎡(1270.5평) 건물 : 401.96㎡(121.6평) 감정이 : 473,683,800원 최저가 : 331,579,000원
- ★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공장) 건물 : 1149.74㎡(347.8평) 감정이 : 675,787,160원 최저가 : 675,787,160원
-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공장용지) 토지 : 15590.5㎡(4716.1평) 감정이 : 1,839,679,000원 최저가 : 1,030,220,000원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